

MZ 위스키 홀릭에 밀린 와인

위스키 수입량 연간 3만t 돌파 예상... 영국서 전체 81% 수입 와인 수입량은 2년째 감소세... 흡술·혼술문화 줄며 소비 감소

직장인 김민영(32)씨는 해외 혹은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경우 면세점에 들러 위스키 한 병을 구매해 돌아온다. 꼭 고가의 위스키는 아니더라도 10~20만원 사이의 위스키를 구매해, 지인들과 함께 마시거나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가의 위스키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면세점을 주 구매처로 삼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없는 저렴한 위스키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해 '하이볼'을 만들어 먹는데, 쓴 맛도 덜하고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어 자주 마신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볼은 위스키와 음료의 종류에 따라 그 맛이 달라 만드는 재미도 있다"며 "다양한 레시피를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어 어렵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위스키 인기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특히 위스키는 탄산수와 주스 등을 넣은 '하이볼'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술자리 트렌드를 이끌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위스키 수입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와인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2만6937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6.8% 늘었다. 올해를 아직 두 달 남기고 역대 연간 최대치인

2002년(2만7379t) 수준에 육박해 사실상 올해 연간 기록 경신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위스키 수입량은 2021년 1만5662t에서 지난해 2만7038t으로 72.6% 급증했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만t 선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위스키 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내 소비가 늘었기 때문인데, MZ세대 사이에서 위스키에 탄산수나 톨닉워터를 넣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끈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이볼을 계기로 쓴 맛 때문에 '아저씨 술'로 취급되던 비싼 술 위스키가 대중적인 술로 변화하고 있다. 수입되는 위스키도 예전에 비해 중저가 제품이 대폭 늘었다. 올해 1~10월 위스키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8% 늘었지만, 수입액은 2억2146만달러로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스키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탄산수에 타 마시는데 굳이 고가의 위스키가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중저가 제품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1~10월 위스키 수입량을 수입국별로 보면 영국이 2만1698t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영국(스톡홀랜드)은 위스키 본고장으로 통한다. 영국 다음으로는 미국(3161t), 일본(1043t), 아일랜드(616t) 등 순이었다. 올해 위스키와 반대로 와인 수입량은 꽤 줄었다. 올해 1~10월 와인 수입량은 4만7500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8% 줄었고 수입액은 4억2678만달러로 11.6% 감소했다. 이로써 와인 수입량은 2년 연속 줄게 됐다. 와인 수입량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흡술(집에서 마시는 술)·혼술(혼자서 마시는 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급증했다.

2019년 4만3495t에서 2020년 5만4127t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 7만6575t으로 급증했으나 지난해 엔데믹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7만120t으로 소폭 줄어든 데 이어 올해 더 감소했다. 와인 수입량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19년(-20.1%) 이후 가장 컸고 수입액이 줄어든 것은 2009년(-32.5%) 이후 처음이다. 올해 1~10월 와인 수입량을 수입국별로 보면 스페인이 1만386t으로 21.9%를 차지해 가장 많고 칠레(8595t), 프랑스(8532t), 이탈리아(7018t), 미국(40642t), 호주(3050t) 등 순이었다. 그러나 수입액은 프랑스가 1억7212만달러(40.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6869만달러), 이탈리아(5817만달러), 칠레(3963만달러), 스페인(2601만달러), 호주(1832만달러) 등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대, 청소년 대상 에너지교실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소금물 전기 자동차 만들기 등

한국에너지공대(켄텍)는 23일 나주지역 초·중·고등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교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켄텍 RC교육센터는 김경 교수와 켄텍 에너지공학부 부경호 교수가 사회공헌 수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에너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에너지교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각 5개 그룹으로 나눠, 미래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공학의 중요성에 대해 수업했다. 초등학생 그룹은 폐품 재활용을 활용한 풍력 자동차 만들기, 친환경 충전용 전기 자동차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중학생 에너지교실은 소금물 전기 자동차 만들기, 신재생에너지로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기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RC교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부생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관심을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 학생들과 지



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교류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22일 런던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서명식 후 케미 비데녹 기업통상부 장관 등 영국 측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전 제공>

김동철 한전 사장, 영국서 K-원전 세일즈

신규원전 후보 부지 확인 등

한국전력은 23일 영국을 방문한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규원전 후보 부지를 확인하는 등 원전 수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영국 웨일스 지역의 버지니아 크로스비 보수당 의원의 초청으로 지난 20일(현지시간) 윌파 신규 원전 부지를 방문, 부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원전 수용성 등을 확인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한영 원자력 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행사를 열고 한전의 원전사업 추진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홍보했다. 이튿날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웨일스 원자

력 포럼 및 맥테크 에너지 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 사장은 포럼 직후 클레어 코치뉴 영국 에너지 안보담당 차관, 케미 비데녹 기업통상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김동철 사장은 "올해가 한영 양국 수교 140주년이며, 국민 방문을 계기로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 여건이 한층 성숙되고 있다"며 "한전이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에 진출하면 1950년대에 최초의 상용원전을 운영한 원전 중추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2월 눈꽃 동행축제 참여 기업 100곳 선정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월4일~31일 홍보·관측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눈꽃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눈꽃 동행축제에는 총 578개사가 참가를 신청

해 최종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유통사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선별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 방식을 거쳤다. 총 1만 명이 직접 마음에 드는 제품을 투표(1인당 최대 5개)해 최종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주요 제품은 세탁이 가능한 전기요, 발난로 등으로 연말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이 선정됐다. 특히, 선정된 기업 중 70여 곳은 12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취약계층 대상 상시 할인 행사 전개, 동행축제 참여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상생과 나눔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동행축제 기간인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참여와 각종 홍보를 지원하며, 전용 온라인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등 알찬 판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기업 제품들은 오는 27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buykresta.org)을 통해 공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